

## 불교환경 워크숍 23일~24일까지

불교환경운동 관련 주제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불교환경운동의 평가와 21세기 불교환경의제 모색을 위해 '불교환경워크숍'을 개최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각 교구 사회국장, 포교사단,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환경운동 주제 실무자 150여명은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 글리리 콘도에서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4개 분과로 나눠 워크숍을 진행한다.

'불교환경의제21 추진 준비위원회(위원장 미산)' 주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또 이병철 녹색연합 공동대표의 강연(생명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환경운동의 흐름과 전망)과 이병인 교수(필양대 환경공학과)의 발제(불교환경활동의 평가와 전망), 김재일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제(불교환경의제 21과 불교환경활동)에 이어 유수스님(한국 불교환경연구회 원장), 법인스님(대흥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 지정토론도 이뤄진다.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회향식을 한 후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에 동참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 금주 24면 발행

# '상생의 가르침' 서울서 꽃 피운다

## '새만금' 살리기 3보1배 50일 넘기며 '관심확산'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 50일째인 16일,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경 스님을 비롯한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수원시내를 지나면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30도에 가까운 날씨. 생명을 지누르는 아스팔트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숨이 막힌다. 서울에 가까이 올수록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이 온몸을 감싸고 있다. 하지만 가야한다. 내가, 우리가 뭣 생명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 50일째인 16일,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경일 교무(원불교 문화교당 주임교무), 이희운 목사(독생명연대 사무처장) 등 4명의 성직자들은 수원을 지나고 있었다. 부안해장 갯벌에서 시작한 삼보일배가서

## 18~21일 각 종교 삼보일배의 날 행사 23일부터 서울서, 일반인도 동참 가능

삼보일배는 18일 수원에서 열리는 '불교 100인 삼보일배의 날 행사'를 거쳐, 19일 기독교인, 20일 천주교인, 21일 원불교인이 뒤를 잇는다. 또한 22일 서울에 진입한 뒤, 23일 문화예술계 집중의 날, 25일 새만금 갯벌 생명명화를 염원하는 범 종교인 기도회 및 삼보일배 행렬맞이 대회(여의도), 26~28일

국회의사당 삼보일배, 30일 삼보일배 800리길 상징 800인 삼보일배의 날(서울역-명동성당),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중단 결정 촉구대회 및 삼보일배 행렬맞이 대회(광화문로) 이어진다. 특히 23일부터는 일반인들도 삼보일배에 동참할 수 있어 참회의 물결이 '육방의 도시' 서울을 뒤덮는다.

수경스님은 삼보일배를 시작하며 "달진해 쓰러지는 저의 몸속에 환하게 꽃피는 봄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에 상생의 가르침이 꽃피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이 해인사 해안거 결제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사진=박원구 기자

## "시시처처 제대로 된 결제를"

### 전국 90여 선원 일제히 하안거 돌입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 조계종립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0여 선원에서 2천여 스님들이 15일 일제히 결제법회를 갖고 3개월간의 하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은 결제법회에서 "결제를 할 때는 맺음 없이 맺어야 제대로 된 결제라고 할 수 있다"며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맺음 없이 앉아 있고, 아무리 머물러 있어도 머문 바 없이 머문다면 시시처처(時時處處)에서 참으로 제대로 된 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어전문·오영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멸빈자 사면부결 포괄논의

### 21일 조계종 원로회의 개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도원)가 멸빈자 사면 부결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21일 오전 10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21차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로회의에서 멸빈자를 포함하는 사면 유시를 내렸음에도 종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포괄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로회의의 내규에 관한 건, 총무보고 및 종책질의를 관한 건도 논의된다.

한명우 기자

## 공주박물관 불상 등 도난

### 조계종 논평 "제자리로"

지방 국립박물관에 강도가 들어 국보로 지정된 불상 등을 강탈해 간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이나 훼손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식됐던 국립박물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15일 오후 10시 25분께 충남 공주시 중동 국립공주박물관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2인조 강도가 침입, 1층 제2전시실에 전시돼 있던 국보 247호 공주의금동보살입상(公州儀堂金銅菩薩立像)을 강탈해 달아났다.

2면에 이어서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제주: (043)644-4366

한국불교가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한 예가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와 우리는 선우. 본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도불교도기 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 것이다.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스님과 김태제 재가연대 NGO 지원분과장 등 인도불교지원팀은 13일 현지지를 방문, 22일까지 이곳에서 회향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13일 델리에 도착한 지원팀은 16일 보드리아 대각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시작으로 18일 마니뿌르 법당 개원식과 19



일 나비간지 법당 개원식, 20일 바레뿌르 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 중 나비간지와 바레뿌르 행사는 인도불교도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나비간지는 석가족 6,000여명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마을 공터에는 시멘트로 만든 불상이 있던 하지만 법당이 없어 피약실에서 법회를 보았다. 인도불교지원팀은 법당 개원 및 불복식에 참석했다.

## 한국불교 세계로

칸노즈 바레뿌르는 '비시 스위르'라는 마을 청년이 불교 공원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2년전 강도에게 총을 맞아 숨진 곳이다. 지난 해 10월 이곳을 방문한 인도불교지원팀은 명상센터와 비시 스위르 추모탑 건립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이 외에도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도회는 최근 이라크로 자원봉사자 4명을 급파했다. 또한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정도행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진각종 등은 네팔에서 불법 흥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불교가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세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다.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나무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보다 낮은 곳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남동우(취재1부 기자)

**전통불교 꽃꽂이 회원모집**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물 꽃꽂이 으뜸-  
(동국대 전통불교 꽃꽂이 연구자, 박길상 화장)  
011-541-7769

www.dhsystem.co.kr

# 불자들에게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만족을 드립니다

대중방이 정리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저희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도 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납의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시찰 납품 대표 모델 • 법흥사 • 삼운사 등

맞춤 불박이장 전문 메이커

(주)대한시스템  
인선광역시 남동구 고진동 733-7 (남동공단 167블럭 8동 8호)  
TEL: (032)822-0022-30 FAX: (032)822-0033  
소버비로센터: (032)822-0030